

고려가요 <정과정>의 노랫말에 대한 새 해석*

유 동 석**

- | | |
|----------------------|-----------------------|
| 1. 내 님물 그리스와 우니다니 | 7. 過도 허물도 千萬 업소이다 |
| 2. 山점동새 난 이숫하요이다 | 8. 몰히마러(리)신더 |
| 3. 아니시며 그츠르신들 아으 | 9. 살웃브(븐)더 아으 |
| 4. 殘月曠星이 아룩시리이다 | 10. 니미 나를 훔마 니즈시니잇가 |
| 5. 녀시라도 님은 훈더 녀져라 아으 | 11.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
| 6. 버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 *괄호 속의 표기는 본좌문고본의 것임. |
| | **행 나누기는 「여요전주」를 따름. |

1. ‘몰히마러(리)신더’를 둘러싼 논리들

<정과정> 8행의 ‘몰히마러(리)신더’에 대해 일찍이 양주동(1947:216)은 “麗謠全體를 通하여 가장 難解의 句이다”라고 한 바 있지만 이 구절에 대한 지금까지의 해독은 해독자마다 각각이거니와 각 해독의 논리 또한 결코 범상해 보이지는 않는다. 대표적인 해독 몇을 먼저 검토해 보기로 한다.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기성회 재원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한 연구임.
**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1)가. 물헛말(衆讒言)이러신더 (양주동1947:216)
 나. 물헛(衆讒)을 마러(勿)신더(김형규1955 :147)
 다. 말키(말끔이) 그만 두셨구나(서재극1960)
 라. 맑게 하는/마름질하게 하는(편안케 하는) 말씀이셨구나 (박병채1994 :185)

(1)은 ‘물헛마러(리)신더’에 대한 대표적인 해독 빛을 보인 것인데 이들은 크게 문제의 구절을 ‘물헛말+이신더’로 끊어 읽은 것과 ‘물헛+마러신더’로 끊어 읽은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후자의 경우부터 생각해 보기로 한다. 김형규(1955), 서재극(1960)의 해석이 그러한데 이들에게서 ‘물헛+마러신더’로 끊어 읽는다는 것은 곧 그것을 ‘말다(勿)’ 동사구로 해독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금지의 ‘말다’는 내포문이 아닌 한, 어휘 속성상 명령형이나 청유형으로는 쓰일 수 있어도 ‘물헛마러신더’와 같은 감탄형으로는 쓰일 수 없는 것이다. 물론 ‘말다’ 동사구로 읽은 것은 초기의 고려가요 해독에서 이용된 판본의 표기가 ‘물헛마러신더’로 된 것에 충실한 것이었겠으나 그 뒤 발견된 봉좌문고 본에 ‘러’가 ‘리’로 되어 있어 문제의 구절은 ‘말다’ 동사구가 아니라 서술격 조사가 통합된 명사구, 곧 ‘물헛말+이신더’로 읽어야 됨을 보여준다. 이 구절을 명사구로 읽은 것은 양주동(1947)과 박병채(1994)이다. 이들은 ‘물헛말’을 모종의 말(言)로 해석하였다는¹⁾ 공통점을 가진다. 그것을 어떤 종류의 말로 해석하는 것은 ‘말다’라는 동사를 상정할 수 없는 한 당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물헛’에 대한 해독은 ‘무리들이 참조하는’(양주동1947)에서 ‘(마음을) 편안케 하는’(박병채1994)으로 극과 극을 달린다. ‘물헛’에 대한 양주동(1947)의 해독부터 보기로 한다. 양주동(1947)은 오자 또는 탈획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물헛’을 ‘물헛’으로 읽었다. ‘무리(衆)’라는 뜻의 중세국어 ‘물’과 ‘헛뜻다는 뜻의 중세국어 ‘할다’가 결합되어 ‘물할다’가 되고 이것의 어간 ‘물할-’에 관형격 조사 ‘시’이 결합(이때 ‘ㄹ’은 탈락)되어 형성된 것이라는

1) 봉좌문고 본을 참조할 수 없었던 양주동(1947)에서 ‘물헛마러신더’를 명사구로 읽은 논리는 ‘러’ 앞에 ‘리’ 탈자가 있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마러신더’를 ‘말다’의 활용형으로 보지 않는 이유로 모음조화에 어긋난다(‘諧音法的 齟齬’)는 점을 든 것은 다소 실망스럽지만, ‘말다’ 관련짓지 않고 탈자를 가정하면까지 굳이 이 구절을 명사구로 읽은 것은 대단한 통찰력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것이다. 그런데 중세국어의 조어 규칙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이러한 조어 방식이 가능할 것인가도 문제이지만 이렇게 해석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물헛마리신더’에 주체높임법의 ‘-시-’가 통합되어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곳의 ‘-시-’에 대해 양주동(1947)에서는 높임의 뜻이 없는 ‘-시-’라고 하였지만 고려가요에서 볼 수 있는 ‘-시-’의 일반적 용법 및 국어 문법사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유형의 ‘-시-’를 높임의 뜻이 없는 ‘-시-’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따른다(김완진1975). 다음으로 ‘물헛’을 ‘편안케 하는’으로 읽은 박병채(1994)의 해독을 보기로 한다. 박병채(1994)에서는 ‘물헛’이 ‘뭍(淸)-이(사동접사)-시(속격)’ 또는 ‘막(裁)-히-시’ 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는데 어느 쪽이든 그것을 ‘(마음을) 편안케 하는’의 뜻으로 연결짓는 논리가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다. ‘물헛’에 대한 양주동(1947)과 박병채(1994)의 이러한 해석은 이것들이 <정과정> 자체의 논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텍스트 밖의 관련 기사에 이끌린 것들이다. 양주동(1994)의 ‘물헛말’은 『고려사(高麗史) 권 71』 <악지(樂志) 2>에 실려 있는 관련 기사(아래 (6) 참고) 속의 ‘迫於朝議也’에 이끌린 것이 분명하며 박병채(1994)에서 ‘편안케 하는 말’은 역시 그곳의 ‘不久當召還’과 관련지은 결과인 것이다.

기존의 해독에 대한 위의 검토를 통하여 분명해진 것은 ‘물헛마리신더’가 ‘물헛말-이신더’의 구성이라는 것과 이때 ‘물헛말’은 모종의 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성의 차원에서 하나 더 덧붙인다면 ‘물헛’에 대한 어원적인 접근(텍스트 자체의 논리보다는 관련 기사에 근거한 어원적 접근)이 아직까지는 그리 성공적일 수 없다는 것도 기존의 해독에 대한 검토를 통해 얻은 소득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물헛말’이 모종의 말이라는 것 외 더 이상의 의미 천착은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한가? 우리는 ‘물헛마리신더’의 생략된 주어물 어느 정도 복원 가능할 것이라는 점에서 좀 더 진전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어와 같은 필수 성분의 생략은 일반적으로 복원 가능할 때만 생략될 수 있는 것인데, ‘물헛마리신더’의 생략된 주어를 복원해 낸다면 ‘물헛말’의 의미 추정도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리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물헛마리신더’의 생략된 주어는 ‘물헛마리신더’ 자체가 보여 주는 문법 정보 및 생략의 일반적 원리 따위를 고려하여 복원할 수 있을 것인데, 이를 다

음과 같이 정리해 보기로 한다.

- (2)가. ‘물헛마리신더’의 생략된 주어는 ‘물헛말’과 같은 일종의 말(言)이어야 한다.
- 나. ‘물헛마리신더’의 생략된 주어는 ‘-시-’와 일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다. ‘물헛마리신더’의 생략된 주어는 <정과정>의 노랫말 안에서 찾아야 한다.

(2가,나)는 ‘물헛마리신더’가 서술격 조사가 통합된 명사문이라는 것과 그것에 주체높임법의 ‘-시-’가 통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2다)는 생략의 일반적 원리를 고려한 것이다. 국어에서 주어의 생략은 그 주어가 화자나 청자를 가리키는 말인 경우, 화·청자가 공통으로 알고 있는 경우, 반복되는 요소인 경우에 일어난다. (2가,나)를 고려해 볼 때 화자나 청자를 가리키는 말이 ‘물헛마리신더’의 주어가 될 수는 없다. 또한 시에서 화·청자는 작중 화·청자뿐만 아니라 작자와 독자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물헛마리신더’의 주어는 텍스트 밖의 어떤 사실로부터 독자가 알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 생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물헛마리신더’의 주어 생략은 <정과정>의 노랫말 안에서 그것이 반복되어 생략된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아래에서 ‘물헛마리신더’의 생략된 주어를 찾는 일과 관련하여 <정과정>의 노랫말을 제검토해 보기로 한다.

2. 녀시라도 님은 혼디 녀저라

앞에 제시한 <정과정> 노랫말에서 상대높임법을 주목해 보기로 한다. 종결형 어미를 가지는 것 가운데 2행의 ‘이숫호요이다’, 4행의 ‘아르시리이다’, 6행의 ‘뉘러시니잇가’, 7행의 ‘업소이다’, 10행의 ‘니즌시니잇가’, 11행의 ‘피오쇼셔’는 호쇼셔체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이 호쇼셔체를 사용한 것은 화자(정서)가 ‘님(왕)’에 대해 한 말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 호쇼셔체 종결어미를 갖는 것들은 ‘-시-’ 활용을 한 ‘물헛마리신더’의 의미상의 주어가

될 수 없다. 이들은 모두 님에게 한 화자 자신의 말이기 때문에 ‘몰히마리신더’에 포함되어 있는 ‘-시-’의 정상적인 용법과 합치되지 않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9행도 제외된다. 호소서제는 아니지만 9행은 감탄문 형식으로서 화자 자신의 심정을 나타내는 일종의 독백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외하면 종결어미를 가지는 것 가운데 남은 것은 5행의 ‘넋시라도 님은 혼디 너져라’ 하나 뿐이다. 이 구절에 대한 기왕의 해독들에서는 ‘넋이라도 님과 한곳에 가고 싶습니다’ 정도로 해석하여 정서의 왕(‘님’)에 대한 간절한 원망(願望)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해독은 문제의 시행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님’에 이끌린 것으로 보이는데 ‘-져라’가 허락체의 등분에 해당하는 어미인 이상 이 구절이 그렇게 해독될 수는 없다. ‘-져라’가 청유형 어미이므로 이 구절은 ‘넋이라도 님과 한곳에 가자’ 정도가 문법에 맞는 해석이거나 기왕의 해독에서처럼 ‘-져라’를 원망형 어미로 본다고 하더라도 ‘넋이라도 님과 한곳에 가고 싶다’ 정도로 해독되어야 할 곳으로서 님에 대한 화자 자신의 말일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 구절을 화자가 님에게 한 말이 아니라 님이 화자에게 한 말로 이해한다. ‘넋시라도 님은 혼디 너져라’를 님의 말로 이해할 때 이 구절은 앞의 (2)에서 말한 ‘몰히마리신더’의 생략된 주어의 성격에 그대로 들어 맞는다.

5행의 ‘넋시라도 님은 혼디 너져라’가 님이 화자에게 한 말이라고 한다면 이 구절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님’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님이 화자에게 “넋시라도 나와 혼디 너져라”한 것을 다시 화자가 <정과정> 노랫말에서 간접 인용하였다 고 보면 쉽게 풀릴 수 있는 것이다.

(3) 世尊이...니르샤디 ‘父王이 病하야 겨지니 우리 미쳐 가 보스빠 마삼물
원히 너기시게 호져라’ 호시고 <『월인석보』 권10 : 6>

중세국어 문법에서 ‘-져라’는 청유형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지만 그 용례는 많지 않아서 허웅(1975)에 위의 (3)이 유일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3)은 ‘-져라’ 구문이 인용 내포문으로 나타나 있다. 물론 (3)이 <정과정> 속의 ‘넋시라도 님은 혼디 너져라’가 인용절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

다. 그것이 인용절임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3)의 ‘혹시고’와 같은 인용동사의 존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베키더시니 뉘러시니잇가

중세국어의 인용문에서 인용동사는 일반적으로 인용절의 바로 앞에 위치하거나 바로 뒤에 위치한다. ‘넉시라도 님은 훈디 녀져라’를 인용절이라고 할 때 그 인용동사는 인용절 바로 뒤에 나오는 ‘베키더시니(베키-더-시-니+이)’의 ‘베키다’가 가장 가능성 있는 후보가 된다. ‘베키다’는 <정과정>과 <만전춘별사> 외에도 『월인석보』 권 23에 한 예가 더 나오는데 이곳에서 ‘베키다’는 인용동사로 사용된 것이다.

(4) 어미 마조 가 손 자바 니르혀아 盟誓를 베키니이다
내 말읏 거출린덴 닐웨를 묻 디나아 阿鼻地獄애 떠러디리라
< 『월인석보』 권 23, 월인천강지곡 기 오백칠 >

(4') 어미 마조 가 손 자바 니르혀아 “내 말읏 거출린덴 닐웨를 묻
디나아 阿鼻地獄애떠러디리라” 베키니이다

(4)에서 ‘베키니이다’는 표면적으로 인용절 대신 목적어 ‘盟誓를’을 실현시키고 있다. 그러나 (4)에서 바로 이어 나오는 ‘내 말읏 거출린덴 닐웨를 묻 디나아 阿鼻地獄애 떠러디리라’는 인용절로서 의미상 ‘盟誓’의 내용이 된다. 따라서 (4)는 (4')와 같은 형식에서 인용절인 따옴표 부분을 뒤로 돌리고 그 자리에 인용절의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단어인 ‘맺서’를 실현시킨 것이다. 곧 (4)의 ‘베키니이다’는 전형적인 인용동사의 용법으로 사용된 것이다.

이제 ‘베키다’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베키(다)’에 대해 양주동(1947:213)에서 “文獻에 用例를 찾지 못하였으나 ‘베키’는 現行語에도 ‘固執·抗言’의 義로 ‘우기’와 並用된다”라고 한 이래 대체로 ‘우기다’라는 뜻으로 풀이하거나 아니면 ‘어기다’(박병채1994 : 179)와 같이 ‘우기다’에서 조금씩 변저나간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기다’의 뜻은 ‘베키다’가 인용동사

라는 사실과 부합된다. 그런데 문제는 ‘버기더시니’에는 주체높임법의 ‘-시-’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것에 포함된 ‘-시-’는 ‘버기다’의 주어가 ‘님’이거나 최소한 화자보다는 상위자임을 말해 주는 것인데 ‘우기다’의 의미로는 그것이 상위자에게 쓸 수 있는 표현은 될 수 없는 것이다. ‘버기다’가 ‘우기다’의 뜻이 될 수 없다는 것은 (4)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맹서’를 우길 수는 없는 것이다. ‘맹서’, ‘약속’, ‘다짐’ 같은 내용의 인용절을 내포하는 인용동사라면 그 의미는 ‘맹서하다, 약속하다, 다짐하다’라야 제격이다²⁾.

- (5)가. 니를 훔디 너가져 願을 비읍노이다<악학계법, 동동>
나. 아소 님하 훔디 너것 期約이이다<악장가사, 이상곡>

‘님은 훔디 너져라’ 유형의 표현은 당시 꽤 유행한 말이었던 듯 <동동>, <이상곡>에도 나온다. 그런데 (5가)의 <동동>에서 그것은 원망(願望)의 연사이지만 (5나)의 <이상곡>에서는 그것이 약속의 언사로도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곧 ‘님은 훔디 너져라’에 이어나오는 동사 ‘버기다’가 ‘약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방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의 논의를 종합하면 <정과정> 5, 6행의 ‘녘시라도 님은 훔디 너져라 아으/ 버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는 ‘녘이라도 님과 한테 가자’고 아아/ 약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정도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에서 ‘녘이라도 님과 한테 가자(녘시라도 니른 훔디 너져라)’는 곧 이전에 님이 화자에게 한 약속의 말이 되며, ‘약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버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는 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을 상기시키는 표현이라 할 것이다.

우리가 텍스트 자체만으로 내린 앞의 결론은 다음의 관련 기사와도 그 내용이 일치한다.

- (6) 정과정은 내사랑중 정서가 지은 것이다. 서는 스스로 호를 과정이라 했다. 왕실과의 연혼한 외척으로서 인종에게 총애를 받았다. 외종 즉위년에 이르러 그 향리인 동래로 귀향할 때 왕이 이르기를 오늘 떠나보낼은 조정의 의논에 떠밀린 것인 즉 오래지 않아 마땅히 다시 부르겠다. 서가 동래에 있는 지 오래되어도 부르는 명령이 오지를 앓았다.

2) 북한의 사회과학원에서 나온 『조선어큰사전』에서는 (4)의 ‘버기다’에 대해 ‘우기다’ 대신 ‘굳히다, 굳게하다’로 뜻풀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거문고를 타며 노래를 부르니 그 노랫말이 대단히 처완하였다.
(鄭瓜亭 內侍郎中 鄭絃 所作也 絃自號瓜亭 聯婚外戚 有寵於仁宗 及毅宗 卽位 放歸其鄉東來 曰 今日之行 追於 朝議也 不久當召還 絃在東來日久 召命不至 乃撫琴而歌之 詞極悽婉 (『高麗史』 卷71, <樂志2>)

곧 '넋시라도 니른 훈디 녀저라'를 화자에게 한 님의 약속으로 해석한 것은 위의 관련기사에서 왕('님')이 정서('화자')에게 '오래지 않아 마땅히 부르겠다'고 한 부분과 완전히 일치되는 해석이라 하겠다.

4. '물헛말'의 의미

이제 '물헛마리신더'의 생략된 주어를 다음과 같이 복원하여 '물헛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7) 넋시라도 니른 훈디 녀저라 버기시던 마리 물헛마리신더
(넋이라도 님과 한테 가자고 약속하신 말씀이 '물헛말'이시구나)

(7)에서 복원한 주어는 앞의 (2)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인데, 이것에서 '물헛말'의 의미로 상정할 수 있는 폭은 상당히 좁혀진다. 곧 앞에서 '버기시더니 뉘러시니잇가(약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가 지켜지지 않은 약속을 상기시키는 표현이라 하였거니와 9,10,11행의 시행들도 모두 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물헛말'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함축하는 말이어야 한다. 곧 '물헛말'의 어원적 뜻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빈말', 또는 '책임지지 않을 가벼운 말'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전체 문맥상 가장 자연스럽다.

여기서 우리는 '물헛'의 어원과 관련된 문제를 잠깐 생각해 보기로 한다. 명사 '말' 앞에 얹혀 있는 '물헛'은 관형어라 할 것인데 중세국어에서 관형어가 'ㅅ' 발음을 가지는 일반적인 경우는 관형격 조사 'ㅅ'이나 '잇'이 통합된 때이다. 'ㅅ'이 통합된 경우라면 '*말히'라는 어형이, '잇'이 통합된 경우라면 '*물히'라는 어형이 추출된다. 물론 후자의 경우는 'ㅅ' 탈획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전자의 '*물히'는 물론이고 후자의 '*물ㅎ'도 문중되지 않는다. 이런 사정으로 '물히말'에 대한 어떠한 어원적 접근도 지금으로서는 가설적인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는 '물히말'을 '물ㅎ+잇 말'로 상정하고 그것이 『소학언해』에 나오는 '므올히말(里巷之語)'의 악보적 표기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 (8) 시러곰 차 픈는 집과 술 픈는 집의 드디 아니 흐며 저제와 므올히말와 鄭과 衛소리를 일즉 혼번 귀에 디대디 아니 흐며(無得入茶肆酒肆하며 市井里巷之語와 鄭衛之音을 未嘗一經於耳하며)(소학언해 권6 : 3)

(8)의 '므올히말'은 그 음상과 의미에서 '물히말'과 매우 유사한 것이다. 다만 『악학궤범』(1493)에 등재될 당시 '므올ㅎ'이 '물ㅎ'로 축약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다른 문헌에서 이러한 예를 보지 못하였으나, <정과정>이 노랫말이라는 점에서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아 가설로 제시해 둔다³⁾. 이 부분에 대해 『대악후보(大樂後譜)』에서 각 글자에 정간을 배당한 양상을 참고로 제시한다.

(9)가. <眞勺一, 三>

		물		히														
마	리						신											
더																		

나. <眞勺二>

		물	히															
마	리						신								더			

3) 가장을 전제로 하는 노랫말의 표기는 어느 정도 악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그것이 악보에 얹혀 있을 때 그러한 성격이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시용향악보』의 표기를 『악장가사』의 그것과 비교해보면 그러한 성격이 뚜렷이 드러난다. 그런데 <정과정>이 실려 있는 『악학궤범』의 고려가요들은 비록 악보에 얹혀 있지는 않지만 표기의 성격은 『악장가사』보다 『시용향악보』에 더 가깝다. 이것은 『악학궤범』의 고려가요들이 단순히 노랫말로 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정재(正才)'의 한 요소인 노래로 실려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러한 문제는 고를 달리해서 살펴볼 생각이다.

『대악후보(大樂後譜)』에는 <眞勺> 악보가 넷이 있는데 가사를 배정한 것은 셋이다. 그런데 <眞勺一, 三>에는 ‘뭇헛’이 세 칸을 차지하고 있고, <眞勺二>에는 불과 두 칸만을 차지하고 있다. 만약 ‘뭇헛’을 두 칸, 또는 세 칸의 길이로 노래하였다면 이것이 ‘뭇헛’으로 들렸을 가능성도 있으리라 본다.

5. 현대어 역

<정과정>의 노랫말에 대한 언어적 이해와 관련하여 지금의 우리로서는 앞에서 살펴본 5행 ‘넉시라도 남은 훈더 녀저라’, 6행 ‘벼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8행 ‘뭇헛마리신더’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해독에서 크게 덧붙일 것이 없다⁴⁾. 3행의 ‘아니시며 거츠르신들’에 대해서도 이설들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 구절의 어휘적 의미만으로는 양주동(1947:208-211)의 ‘非며 妄僞인줄을’이 어학적으로 가장 무난한 해석이다⁵⁾. 다만 양주동(1947)에서 이 구절의 ‘-시-’에 대해 간단히 ‘비존칭 「시」’로 처리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 구절의 주어를 정서와 관련된 기사에 이끌려 ‘참언(讒言)’으로 본 결과가 아닌가 한다. 그러나 이런 어형에서의 ‘-시-’가 주체높임법이 아닌 다른 것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구절의 주어는 ‘-시-’를 문법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한, 작중 청자인 ‘님’이거나 ‘님’의 어떤 행위라야 할 것이다. 11행의 ‘도람’은 동사 ‘돌(回)-람’으로 분석하여 그것을 ‘잔 사설’이라는 뜻의 명사로 보는 설(양주동1947)과 ‘들러’라는 뜻의 부사로 보는 설(남광우 1960)이 있으나 어느 쪽이든 지금으로서는 가설일 수밖에 없고 ‘피오쇼셔’의

4) <정과정> 노랫말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주석에 대한 종합적 정리는 고영근·남기심(1997), 김인택(1997), 양태순(1992) 등에 잘 정리되어 있다.

5) ‘그를-’을 정서의 유배지인 ‘東萊’의 ‘萊’와 관련지어 ‘(서울에) 아니 있으며 동래(거출)에 있다 하더라도’로 해석하는 일이 있다(권영철1968), 표기된 어형에서 지나치게 벗어난 해석이다. 표기법 상으로 ‘아니시며’는 ‘아니+이-시-며’로, ‘거츠르신들’은 ‘거출-오시-니 들’로 분석하는 것이 제 일감인데 이런 분석에서 ‘아니’는 ‘不’의 뜻인 부사가 아니라 ‘非’의 뜻인 명사일 수밖에 없고 또 ‘僞, 荒’의 뜻인 ‘거출-’은 용언의 어간일 뿐, 그것이 명사(지명)로 해석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경우 '사랑하다'는 뜻으로 양주동(1947)에서 '피오-쇼셔'로 분석하였으나 남광우(1975)의 '피-고쇼셔'가 어학적으로 보아 무리가 없는 분석이다.

그런데 앞에서 본 것과 같은 난해 어휘들도 문제지만, 정작 <정과정>을 현대어로 옮기는 일의 어려움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1행과 같은 평이한(?) 구절에서 만나게 된다. 1행에는 우리가 모르는 난해 어휘나 문법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1행에서 '내'가 주격인지 관형격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어느 쪽이든 '우니다니'를 '우니-더-오-니'로 이해하는 한, 전체 해석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1행의 '-니'를 접속어미로 보아 '내가 (나의) 님을 그리워하여 울고 있더니'와 같은 접속절로 옮겨서는 그것이 2행과 썩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다. 중세국어의 '-니'는 두 가지 용법이 있다. 하나는 선·후행절 사이의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선행절이 후행절의 내용 전개에 전제가 됨을 나타내는 것인데 전자와 같은 '-니'의 용법은 현대어에도 있으나 후자와 같은 '-니'의 용법은 현대국어에 없다. 중세국어에서 후자의 '-니'는 '-더-'와 같은 서법 어미와 통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능이 거의 종결어미와 같다 (이현희 1994 :63-4). <정과정> 1행의 '-니'를 접속어미로 본다면 그것 앞에 '-더-'가 통합되어 있으므로 위에서 말한 후자의 '-니'가 된다. 그런데 후자의 '-니'의 용법은 현대국어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대국어의 '-니'로 옮겨서는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후행절과의 연결도 부자연스럽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정과정> 1행의 '우니다니'에 대해서는 접속어미 '-니'가 통합된 것이 아닌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곧 '우니다니'를 '우니단(우니-더-오-니)이(의존명사)+이(주격조사)'의 구조로 파악하는 것인데 이 분석도 문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 '우니다니'를 이렇게 이해하면 1행은 2행의 '이숫흐요이다'의 비교내용이 되어 의미상으로도 1행과 2행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된다.

이상의 논의에 대한 결론 대신으로 아래에 <정과정> 노랫말에 대한 현대 어역을 제시하다.

내 님을 그리워하여 울던 양이
산적동새와 나는 비슷합니다
(님이) 옮지 않으시며 거짓이신 것을 아으

잔월효성이 아실 것입니다
 낮이라도 남은 한테 가자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나는) 과도 허물도 천만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마을의 말이지구나!
 애달프구나! 아오
 남이 나를 하마 잊으셨습니까
 아소 남하 돌려(?) 들으시어 사랑하소서

위의 현대어 역에서 괄호 속의 말은 생략의 일반 원리 및 주어와 관련된 문법 요소인 ‘-시-’, ‘-오-’등을 고려하여 보충한 것이다.

참고문헌

고영근·남기심(1997), 『중세어자료강해』, 집문당.
 권영철(1973), 정과정가 신연구, 경북대 박사논문.
 김봉모(1997), ‘정과정’의 어학적 해석, 『과정문학의 재조명』, 파전 한국학당.
 김완진(1975), 문학작품의 해석과 문법, 『학술원 논문집』 14. 『문학과 언어』 (1979, 탐출판사) 재수록.
 김완진(1985), 고려가요 어의(語義) 탐색의 몇 경우, 『역사 언어학』
 김완진(1997), 고려가요 해석의 반성, 『국어학』 29.
 김인택(1997), 정과정곡 노랫말 풀이에 대한 회고와 전망, 『과정문학의 재조명』, 파전 한국학당.
 김형규(1955), 『고가주석』, 백영사.
 남광우(1960), 고가요에 나타난 난해어에 대하여- 여요를 중심으로-, 한글126.
 남광우(1975), 고려가요 어석상의 문제점에 관하여, 『고려시대의 언어와 문학』, 형설출판사.
 박병채(1994), 『(새로 고친) 고려가요의 어석 연구』, 국학자료원.
 서재극(1960), 정과정곡 신석 시도, -주로 ‘물깃’을 중심으로-, 『어문학』 6.
 양주동(1947), 『여요전주』, 을유문화사.

양태순(1992), <정과정>의 종합적 고찰, 『한국고전시가작품론』 1, 집문당.

양태순(1997), 『고려가요의 음악적 연구』, 이화문화사.

유동석(1999가), “<정읍사> 연구 -‘저재녀러신고요’에 대한 어학적 해석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13,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 연구소.

유동석(1999나), “고려가요 <서경별곡>에 대한 새 풀이-”, 『한국민족문화』

14.

이현희(1994), 『중세국어 구문연구』, 신구문화사.

허용(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Abstract

New Annotation for Chunggwajung(鄭瓜亭)

Ryu Dong-Suk

In this paper, I have provided new annotations for some phrases of Chunggwajung written by Chung-su at Koryo dynasty, as follow :

(1) 녀시라도 님은 혼디 녀져라 : According to the previous studies, this phrase has been believed to be Chung-Su's words, but on the basis of herer-honorific, I has asserted that it is Lover's words.

(2) 벼기다 : This word also has been interpreted as 'stickle', but in this paper I has asserted that it has a mean as 'promise'.

(3) 물헛말 : This word has been believed to have a meaning like 'a slander', but I think that it might have a meaning as 'an empty promise', which could be literally interpreted as 'village(물헛)-word(말)'